

【논문】

##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철학개념

박 신 화

【주제분류】 현상학, 프랑스 철학, 언어 철학

【주요어】 메를로-퐁티, 지각, 사유, 언어, 철학개념

【요약문】 본 논문의 목표는 메를로-퐁티의 초기 저작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철학개념을 고찰하는 데 있다. 메를로-퐁티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르면 철학은 경험에 대해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경험 자체와 의미적으로[의미를 통해] 사유되고 언표된 경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그는 자신의 지각의 현상학의 기획 안에서 이 문제를 지각과 언어의 관계의 문제로 제기하는데, 우선 나타남[경험]의 방식에 따를 때 언어현상은 철저하게 지각으로 규정되며,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자연적) 지각 위에서 언어적 의미의 분출이라는 추가의 사태를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지각과 언어 사이에는 구조적 ‘동일성’과 ‘양상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각과 언어 사이의 이러한 관계의 이중성은 저자의 고유한 철학개념을 귀결하고 있으며, 우리는 저작의 3부 1장인 「코기토」 장의 논의들 속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다.

### I. 서론: 지각, 사유, 언어

우리는 본 논문에서 메를로-퐁티가 자신의 초기 저작 『지각의 현상

학』(1945)에서 주제적으로 제기한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위 저작 안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저작의 「서문」(“Avant-propos”)에서 인용하는 후설의 한 구절이 있다. “그 자신의 의미에 대한 순수한 표현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없는 경험(*expérience muette*)이다.”<sup>1)</sup> 철학이란 무엇인가?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철학의 존재의미이기도 한 그 근본 목표는 **말없는 경험의 고유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다. 왜 경험은 말없는 것으로 규정되는가? 그리고 말없는 경험의 고유한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왜 경험은 말없는 것으로 규정되는가? 상기한 「서문」에서 메를로-퐁티는 이에 대해 “우리의 실존은 세계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대로 인식되기에는 너무나 세계에 밀착되어 있”(24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 혹은 지각하는 순간 이 지각은 그 자체로는 지각 자신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지각의 연속이지만, 즉 누구나 다 지각 속에서 살지만 지각하는 자마다 지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조차 우리는 주위의 사물을 보고 있지만 이 지각이 지각하는 나란 어떤 존재인지, 사물이란 무엇인지,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요컨대 지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각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생각해야’ 하며,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철학이 항시 경험과의 ‘반성적 거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경험은 그 자체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으며 이런 의미에서 ‘침묵’하는데, 인식은 철학이 수행하는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이때 반성이 궁극적으로

1)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p. X.;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25면. 이 저작에서의 인용은 번역본을 따르며 본문 안에 번역본의 면수만을 표기한다. 본 인용구의 원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후설, 『데카르트적 성찰』, 이종훈 옮김, 한길사, 2002, 86면.

겨냥하는 것이 바로 경험의 고유한 의미이다.

그런데 동일한 「서문」에서 메를로-퐁티는 경험과 의미 사이의 이러한 구분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쓴다. 그것은 바로 경험 자체와 그것의 의미 사이의 ‘의미론적 단절’의 문제이다. 사실 철학의 근본 목표가 인용한 바와 같이 **말없는 경험의 고유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다면, **말없는 경험 자체와 의미적으로[의미를 통해] 말해진 혹은 사유된 경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의 물음이 곧바로 제기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물음은 철학 일반의 기초를 묻는 물음인데, 왜냐하면 이 물음이 해명되지 않고서는 철학이 경험에 대해 아무리 다양한 사유와 말들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유와 말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이 사유와 언어로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 철학이 경험(의 의미)에 대한 언어적[사유의] 표현인 한, 경험 자체와 경험의 의미 사이의 구분은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철학은 이에 답해야 한다.** 그런데 논의의 이 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다시 한 번 후설의 용어법을 참조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사실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그는 후설에게 있어서의 “형상적 환원”의 의미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본질 사이의 후설적 구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세계-내-존재 위에 토대하고 있는 지각은 그 자체로는 지각 자신에 대한 인식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세계-내-존재로부터의 ‘몰려섬’이 필요하고, ‘본질’은 바로 인식을 위해서는 이러한 몰려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쓰기를,

후설은 모든 환원이 초월론적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형상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위와 같은 세계정립 및 우리를 규정하는 세계에 대한 이 관심과 하나되기를 그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세계를 그 자체로 하나의 광경으로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의 참여의 이편으로 몰려서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 실존의 사실에서 그것의 본성으로, 현존(Dasein)에서 본질(Wesen)로 이행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철학의 시선으로 가져올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24면, 번역 수정)

우리의 실존은 “[자신의] 사실성을 인식하고 쟁취하기 위해 이념성의 장을 필요로 한다”.(같은 면) 그런데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통상의 ‘관념론적 사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에서 본질로의 이행이 사실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대가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사실, 후설에게 있어서 이러한 단절은 극복되는데, 왜냐하면 후설은 이미 본질이 사실 위에 기초해 있음을 뚜렷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곧, 한편으로 철학은 사실에서 본질로의 이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질은 우리 실존의 사실 위에 서 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서로 구분되는 사실과 본질이 후설에게 있어서는 본질의 ‘사실성’으로 인해 다시 연결되는데, 이 때 이 연결을 수행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언어다.

[따라서 장 발(J. Wahl)이 그랬던 것처럼] “후설은 본질과 실존(existence)을 분리시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분리된 본질들은 언어로만 그러하다. 본질을 분리해서 놓아두는 것이 언어의 기능인 것이다. 사실상 그 분리는 외관상 그러할 뿐이다. 왜냐하면 본질은 언어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의식의 선술어적 삶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발원적 의식의 침묵(silence de la conscience originaire) 속에서 우리는 (날)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사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즉 명명과 표현의 행위가 그 주위에서 조직되는 최초의 의미의 핵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25면)

본질을 보편성으로 실존[혹은 사실]을 개별성으로 정의하면서 본질에 대한 인식은 실존의 개별성을 사상(捨象)함으로써만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 즉 본질은 개별성으로 존재하는 실존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moyen)”(24면)일 뿐임을 망각하고 본질을 철학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다. 분명 본질은 개념과 의미(significations)를 통해 언표되는 것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언어적이다. 그리고 언어(존재)는 현행적 발화행위의 개별성을 초과한다는 의미에서 ‘의미적’,

보편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존과 본질은 개별성과 보편성의 대립적 관계로밖에는 규정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가 본질을 이미 획득된[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것의 형성 토대를 묻는다면 본질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의식의 선술어적 삶—언어적 삶이 그것의 중요한 차원을 구성하는—에 기초해 있음이 드러난다. 말하자면 형성 중에 있는 본질은 우리의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렇듯 본질이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개별성과 보편성의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 대립보다 더 깊은 어떤 통일성의 관계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고에서 이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철학 일반의 기초 물음인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언어적[사유적] 표현의 관계의 문제를 본 절의 표제이기도 한 지각, 사유, 언어의 관계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지각에 대해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지각 자체와 지각에 대한 사유 혹은 언어적 표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어지는 절들(II, III)에서 우리는 언어와 지각의 관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고유한 이해를 분석할 것이다. 지각과 이 지각에 대한 사유 혹은 언어적 표현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밝혀질 것처럼 만일 언어를 동반하지 않는 사유란 불가능한 것이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지각에 대한 ‘사유’, 지각에 대한 ‘말’이므로 무엇보다도 ‘말(한다는 것)’의 의미, 곧 언어의 본성[혹은 구조]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두 절을 통해 우리는 언어를 지각현상으로 정의하는 메를로-퐁티의 고유한 논리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절(IV)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전개한 지각에 대한 언어의 고유성 테제를 분석할 것이다. 앞선 절들에서는 지각과 언어 사이의 구조적 ‘동일성’이 문제였다면, 이 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지각에 대한 언어의 ‘양상적’ 차이가 문제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이 차이가 지각과 언어의 근본적인 구조적 동일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가 문제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절(V)에서 우리는 앞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우리의 문제인 지각, 사유, 언어의 관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최종적인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저자의 철학개념을 끌어내는 것이 이 절의 목표이다.

## II. 지각과 지각대상

이제 고찰할 언어의 지각적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본 논문은 이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sup>2)</sup> 우리는 메를로-퐁티가 전개한 언어의 본성에 대한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각의 현상학』의 철학사적 문제의식을 약술하는 것으로 저자의 지각 이론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지각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탐구는 이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사유들에 귀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인데, 저자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립하는 두 가지 철학적 입장이 있음에 우선 주목했다. 첫째, 인간을 객관적 세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을 저자는 흔히 ‘실재론’이라 언명한다. 이 입장에 따를 때, 인간은 객관적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세계에 의해 완전히 규정되어진다. 둘째, 세계를 인간의 의식적 삶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을 저자는 흔히 ‘관념론’이라 언명한다. 이 입장에 따를 때, 의식은 세계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존재로 ‘주체’로서의 존재론적 우위성을 갖는다. 자신의 초기의 저작들에서부터 메를로-퐁티는 이 두 가지 전통적 입장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을 전개했는데, 공통된 논지는 이 두 입장 모두 우리의 경험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 입장은

2) 이 논의를 위해서는 주성호,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진리문제』, 『기호학연구』(제 14권), 2003, 107-127면을 참조. 저자는 논문에서 『지각의 현상학』이 지각적 경험과 관련하여 철학사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는지를 감각개념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각각 우리 경험의 어느 한 측면에만 주목했을 뿐,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한 측면을 간과했다. 관념론 철학은 여타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 대한 의식(존재)의 고유성을 드러내는데 탁월했으나,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대상(존재)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의 속함’(appartenance au monde)을 자신의 구조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반면, 실재론 철학은 여타의 존재자들에 대한 의식의 고유성을 부정하면서, 지각을 세계내부적 존재자들 사이의 인과적 기계적 관계로 간주했고, 그 결과 모든 경험의 조건인 ‘코기토의 확실성’까지 부정해 버렸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양자의 철학적 입장들은 서로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타당했으나 자신을 실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자의 시종일관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즉 사실상의 우리의 지각은 실재론과 관념론이 각각 주제화시킨 두 측면—언뜻 보기에 양립불가능해 보이는—을 다 가지므로 지각의 이 ‘애매성’을 이해시켜 줄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개념의 추구를 저자는 ‘경험에로의 복귀’로 시작했다. 메를로-퐁티가 보기에, 이상의 두 가지 전통적 철학의 입장은 모두 존재에 대한 실체론적 개념화(conception positive)에 기초하고 있다. ‘토대(fondement)에의 요구’로도 불릴 수 있을 이 개념화에 따르면, 그것이 객관적 세계이건 아니면 의식이건, 지각은 독립적 존재성을 가지는 실체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객관적 세계가 그 토대로 간주될 때 의식은 그 객관적 세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인과적 기계적 사건들의 연쇄로 환원된다. 반면 의식이 그 토대로 간주될 때 의식과 세계 사이에는 주체/대상의 초월론적 거리가 가정된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실체론적 토대론적 개념은 우리가 경험에로 복귀하여 편견없이 경험에 대한 분석을 전개할 때 논파된다. 이렇게 경험에로 복귀하여 그에 대한 충실한 기술(記述)로부터 철학을 시작하려는 메를로-퐁티의 고유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우리들의 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다양한 인간과학적 연구들에 편견없이 다가설 수 있게 했다. 저자는 특히 형태

심리학(Gestaltpsychologie)에서 지각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보였다. 형태심리학은 지각을 전통적 사유에서처럼 ‘감각들의 연합’이나 ‘감각들을 매개한 판단’으로 보지 않고—각각 경험론과 관념론의 입장들인 두 입장은 감각을 순수한 수동성(혹은 수용성)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다시 말해 지각을 ‘가상의’ 형이상학적 요소들(곧 ‘순수 감각’들과 ‘관념’들)로부터 시작하여 구성하지 않고, 그 실제적 주어짐에 주목하여 분할불가능한 전체성인 “형태” 혹은 “구조”로 개념화한다. 곧, “형태(Gestalt)는 [...] ‘요소들’을 ‘전체’에 의존하게 만드는 감각장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이질적 질료 위에 얹혀지는 어떤 형식 같은 것이 아니다. 형식없이는 질료도 없다. 다소간 안정적이고, 다소간 분절된 조직들만이 있다.”<sup>3)</sup> 지각이 형태의 경험인 한, 지각은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심리적 사실도 아니고—왜냐하면 형태는 요소들의 단순한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체로 존재함으로—관념론자들이 말하는 구성하는 의식의 산물도 아니다—왜냐하면 형태는 요소들에 대한 고려없이도 규정가능한 순수한 ‘관념’이 아니라 오직 요소들의 조직화로서만 존재하는 전체이므로. 초기의 저작들에서 메를로-퐁티는 이 형태개념을 데카르트적, 칸트적 나아가 후설적 의식 철학의 극복책으로 제시했다.<sup>4)</sup> 세계를 구성하는 (혹은 규정하는) 의식은 지각대상이 드러내는 형식과 질료의 이 고유한 통일성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Merleau-Ponty, *Le primat de la perception et ses conséquences philosophiques*, Cynara, 1989, p. 25.

4)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관련하여 메를로-퐁티는 특히 『이념들』로 대표되는 후설의 ‘정적 현상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남인,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근간) 참조.



### III. 언어의 현상학: 의미는 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에 충실할 때 언어현상 또한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곧, 언어도 지각현상이다. 저자는 언어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각에 대해 분석할 때와 꼭 마찬가지로 경험론적 관점과 지성주의의 그것이 겹보기와는 달리 공통의 전제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을 시작한다. 우선 의식의 실재성을 ‘의식 상태들’의 그것으로 정의하는 경험론은 각각의 의식 상태에 “어휘의 상(images verbales)”<sup>5)</sup>의 실제적 현존을 대응시키면서 말하는 주체를 제거한다. 만약 의식 상태들의 계기만이 있다면 낱말들의 흐름은 어떤 법칙으로 규정가능한 자동적 흐름이게 된다. 그리고 낱말들의 이 흐름이 신경생리학이나 연합 등등의 기계적 법칙에 따른 것이라면 그 흐름은 인과성의 관계를 통해 결합되는 사건들의 연속일 뿐, 낱말들은 따로 ‘의미(signification)’의 차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그 흐름은 다만 낱말들의 심리적, 생리적, 심지어 물리적 특성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날 뿐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말함의 어떤 의도도 없이 증식되는 말들의 흐름이 있”(273면)게 된다. 그런데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렇듯 경험론이 언어를 어휘상의 실제적 현존으로 정의할 때, 이러한 언어 이론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결정적으로 반박된다. 가령 실어증(aphasic)을 겪는 한 환자는 “자동 언어(langage automatique)” 상에서는 아무 어려움없이 말을 하다가도 “무상 언어(langage gratuit)” 상에서는 특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사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 즉 현실적으로 체험된 것의 부정을 의도할 때는 손쉽게 ‘아니다’라는 말을 발견하는 그 동일한 환자는 감정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에서는 그 말을 하는 데 실패한다.”(274면, 인용자 강조) 즉 실어증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객관적으로 문제의 단어를 보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도

5) 『지각의 현상학』, 272면: “발음되거나 들린 말에 의해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

주지 않는다. 반대로 실어증의 본질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주체의 어떤 방식에 있고, “자동 언어”와 “무상 언어”는 주체가 단어들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인 것이다. 사실 문제의 환자는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관심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언어 수행 방식인 “자동 언어” 상에서 낱말들을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주체와 다르지 않다. 양자의 차이는 오직 환자가 낱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언어 상황에 대한 ‘실제적 체험’의 결여로 그 낱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 수행 방식인 “무상 언어” 상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실어증과 관련할 때 문제의 관건은 이 “무상 언어”의 의미를 아는 데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무상 언어”의 영역은 “자동 언어”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으므로 경험론은 결정적으로 이론(異論)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경험론은 언어의 본질을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요소들의 실제적 현존으로 환원함으로써 이 두 가지 낱말 사용 방식의 차이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성주의는 사유하는 주체의 현존을 받아들임으로써 경험론이 봉착한 이 난점을 넘어서고자 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어떤 자동현상이 아니라, 사유하는 주체의 내적인 작용의 외적인 표출(ex-expression)인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성주의 언어 이론의 이러한 이론적 시도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언어를 사유하는 주체의 작용 위에 기초지우는 지성주의의 기획 안에는 이미 경험론에서와 동일한 이론적 전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두 입장 모두에서 단어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경험론은 의미를 발화된 단어들이 뇌 ‘안’에 남기는 물리적 흔적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반면 지성주의는 의미를 사유 안에 위치시키면서 단어를 사유의 단순한 “외피”로 간주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말하자면 이 후자의 지성주의적 관점의 경우 의미는 다만 사유 속에 보존되어 있으며, 단어는 그 자체로만 보면 일체의 의미를 결여한 순수한 물리적 사물일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각의 현상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1949년의 소로본 강의

에서 메를로-퐁티는 말한다.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볼 때 의식과 언어 사이의 만남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의식 안에서 어떤 유일무이한 존재 타입을 인정한다면, 언어는 의식 밖으로 내던져지고 사물들과 비슷한 것이 된다. 의식과 언어 사이의 내적인 결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기 위해 본질적으로 자기의식이기 때문이다.<sup>6)</sup>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볼 때 의식은 본질상 언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까닭에 말해지거나 쓰여진 낱말들은 거기서 자신 안에 의미를 결여한 단순한 물리적 사물처럼 간주된다. 그리고 이와 상관적으로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 의식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성주의 언어 이론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성주의는 현실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의식은 본질상 자기의식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 안에 이미 처분가능한 것으로 있는 의미들과만 관계할 수 있다면 의식은 말해지거나 쓰여진 단어에서 의식 자신 안에 이미 있는 의미들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궁극적으로 자기관계적 존재라면 의식은 모종의 방식으로 경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의식은 스스로[자신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일 것이므로—,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은 원리상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지 않은 것과는 관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때 “의식은 자신이 거기에 놓아둔 것만을 자신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그

6) Merleau-Ponty, *Merleau-Ponty à la Sorbonne. Résumés de cours 1948-1952*, Grenoble, Cynara, 1988, p. 9. 이하 M.S.로 표기.

7) 『지각의 현상학』, 278면. 이와 동일한 논지의 주장들이 메를로-퐁티의 저작의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저자의 이 주장은 의식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문제제기에 기초해 있다. 요컨대 의식의 구체적인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의식에 대한 형식적 파악—칸트 주의가 그 전형인—에 머무는 한, 우리는 의식이 본질상 자기의식이라는 사실이 왜 경험의 확장과 양립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면 의식이 세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문제라면, 그리고 의식의 ‘자

러나 의사소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획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 획득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어는 청자 안에 이미 있는 특정의 의미를 환기시켜주는 기능만을 하는, 의미를 결여한 단순한 물리적 사물이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단어는 타인이 결여하고 있던 의미를 타인의 의식 안에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처럼 서로 다른 의식들 간의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사적 영역 안에 폐쇄된 채로 갇혀 있는 그런 ‘자기의식’이어서는 안 되고,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타인의 의식과 세계에 열려진 것이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지성주의에 따라서 만약 의미가 개별적 의식 안에 배타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라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존재 양상에 있어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유를 통해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면”<sup>8)</sup>,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유만 하면 될 것이므로 의사소통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이렇듯 지성주의의 언어 이론이 우리의 실제의 언어적 삶을 놓고 있다면, 메를로-퐁티는 “**단어들은 의미를 가진다는 단순한 사실**”<sup>9)</sup>을 환기시킴으로써 지성주의 언어 이론이 가지는 이 한계를 넘어선다. 먼저 다음을 강조하자.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단어가 그 자체로 의미를 나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비단 청취작용(acte d'entendre)과만 관계하지 않는다. 반대로 단어가 ‘자신 안에’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말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말(parole)**<sup>10)</sup>과 **사유의 동시성**이란 근원적인 사태와 이어져 있다. 말을

---

기관계’를 의식의 본질적인 규정으로 가정한다면, 이렇듯 자기관계‘인’ 의식의 (의미)구성작용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의미들에 의존할 것이고, 결국 이때 ‘새로운’ 의미의 경험은 애초 불가능해진다. 이 논점은 곧이어 논의될 창조적 표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8) M.S. p. 9.

9) 『지각의 현상학』, 276면. 강조는 메를로-퐁티.

10) 여기서 현행적 언표행위를 의미하는 단어 “parole”은 이 parole을 통해 침전되고 저장되는 구조인 랑그(langue)와의 구분 속에서 국내에서는 흔히

사유 위에 기초지우는 지성주의 언어 이론은 말에 대한 우리들의 실제적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령 지성주의는 ‘언어 이전의 사유’를 운운하지만 말을 결여한 사유는 나타나자마자 무의식으로 떨어지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외적으로건 내적으로건 말해야 한다.<sup>11)</sup> 즉 “말하는 자에게 있어서 말은 이미 형성된 사유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한다.”(278면) 그런데 말이 사유를 완성한다는 것, 혹은 말이 그 자체로 사유라는 이 사실은 창조적 표현현상 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창조적 표현은 새로운 사유가 앞서 있고 그 외적인 표현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창조적인 시적 표현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창조적 표현에 있어서 사유는 새로운 표현과 ‘동시에’ 탄생한다. 그런데 사유와 표현의 이 동시적 탄생이란 사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요컨대 만약 말과 사유 사이에 동시성이 있다면 새로운 사유의 ‘새로움’은 그 사유가 아직 스스로를 표현할 말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새로운 사유가 나타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설령 하나의 창조적[새로운] 표현이 주어진다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우리의’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창조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창조적 표현현상을 분석할 때 직면하게 되는

---

번역없이 ‘파롤’로 음차되어 쓰인다.(가령 신인섭, 『지각에서 역사로의 교두보, 메를로-퐁티의 언어 현상학』, 『철학연구』, 제 70집, 2005, 43-89면 참조).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작 『지각의 현상학』과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과의 연관성은 희박하고 무엇보다 글의 흐름상 음역이 어색해 이 단어를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parole’을 병기하며 ‘말’(혹은 경우에 따라 ‘말하기’)로 옮긴다.

- 11) 『지각의 현상학』, 276-277면 참조: “말이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면,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식의 의도나 표상에 의해서 대상과 결합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사고가 자신의 완성을 향하듯 표현을 향하는가를, 왜 가장 익숙한 대상이 우리가 그 이름을 되찾지 못했던 한 우리에게 미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책에 써넣을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책을 쓰기 시작하는 그토록 많은 작가들이 실례로 보여주듯이, 왜 사고하는 주체가 자신의 사고들을 대자적으로 정식화하지 못하는 한, 심지어 말하거나 쓰거나 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사고에 대하여 일종의 무지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는 분석의 오류를 뜻하기는 커녕 정반대로 그 자체로 표현현상의 정의가 되고 있다. 즉 창조적 표현들이 사실상 존재하고 또 이해되고 있는 이상 ‘사유는 말로서 발생한다’는 것, ‘의미는 말 자체에서 파악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표현의 역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창조적 표현의 본질은 이미 구성된 의미들을 통해 그 의미들을 초과하는 새로운 의미를 개시하는데 있다. 이때 우리는 그 미지(未知)의 새로운 의미를 기지(既知)의 의미와의 관계를 통해 발견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발견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지향과 기지향의 관계가 먼저 정의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이를 위해서는 그 미지의 의미가 이미 발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창조적 표현의 의미가 표현 그 자체를 통해 이해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처럼 창조적 표현현상이 드러내는 것은 표현과 표현된 것(의미)의 고유한 통일성의 사태다.<sup>13)</sup>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성주의는 자신의 이분법 속에서 표현과 의미 사이에서 외적인 관계만을 보았다면 메를로-퐁티는 개념적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의 차원을 발견해냄으로써 표현과 의미 사이의 내적인 관련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 한 가지로 저지는 개념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텍스트의 ‘실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환자들의 예를 든다. 말하자면 “환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도 ‘어조를 넣으면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284면)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의미를 개념적 의미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환자로 하여금 개념적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올바른 억양을 넣으면서 읽게 만드는 텍스트에 대한 이

12)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표현의 역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B. Waldenfels, “Le paradoxe de l’expression chez Merleau-Ponty”, *Notes de cours sur L’Origine de la géométrie de Husserl*, éd. R. Barbaras, P.U.F., 1998, pp. 331-348.

13) 다스튀르(F. Dastur)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의 통일성의 문제와 심신결합의 문제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논한 바 있다. “Le corps de la parole”, *Chair et langage, Essais sur Merleau-Ponty*, Encre Marine, 2001, p. 50 이하 참조.

‘이해’의 정체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문제의 현상은 오직 우리가 다음의 사실을, 곧 “말이나 단어들은 자신에게 접촉해 있는, 그리고 사고를 개념적 진술로서보다는 오히려 스타일로서, 정서적 가치로서, 실존적 몸짓으로서 부여하는 의미의 최초의 층을 가진다”(284면, 번역 수정)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표현과 의미의 이 통일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술적 표현의 경우들이다.

소나타의 음악적 의미는 그것을 나르는 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듣기 전에는 어떤 분석도 우리에게 그것을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주가 끝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음악의 지적 분석에서 경험의 순간을 회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284-289면)

동일한 방식으로, 여배우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페드르(Phèdre)이다. 의미는 기호를 먹여 삼키고, 페드르는 베르마(Berma)를 너무나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르에 그가 빠져 있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움과 용이함의 극치인 것처럼 보인다.(같은 면)

예술적 표현의 경험에서 최초로 주어지는 것은 의미를 결여하고 있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반대로 기호는 의미에 의해 “먹여 삼켜지고”, 나타나는 것은 의미 자체이다. 이처럼 예술적 표현의 분석은 표현과 의미의 불가분적인 통일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통일성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고찰한 바 있는 지각대상의 통일성—“형태(Gestalt)”의 통일성—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언어를 표현현상으로 접근하는 메를로-퐁티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말(parole)의 지각적이고 ‘동작적인’ 차원(dimension gestuelle)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말을 ‘자신 안에 의미를 가지는 동작(geste)’, 한 마디로 말해 지각의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표현]과 사유[의미] 사이에 ‘외적인’ 관계만을 설정하는 이론적 입장에 설 때 말을 일종의 동작으로 간주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과 동작은 모두 본질상 의미를 결여

한 ‘사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반면 말과 의미의 불가분적인 동일성을 강조하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말을 동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때 말(즉 언어)은 그 의미가 항상 자신의 ‘동작적 의미’로 환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메를로-퐁티는 언어적 의미들의 무한정한 다양성이 모두 말이 ‘외적으로’ 표출하는 그것의 동작적 의미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동작은 지각되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동작 자체를 통해 이해된다.** 메를로-퐁티는 동작의 이해가 타인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나 추론에서 비롯된다는 지성주의적 관점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동작은 ‘사유’의 매개없이 이해된다는 것으로, “나는 분노나 위협을 동작 뒤에 숨어 있는 정신적 사실로서 지각하지 않는다. 내가 동작에서 분노를 읽고 그 동작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작은 분노 자체이다.”(287면)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물론 우리는 동작의 의미를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각하지는 않는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동작의 이해가 어떤 ‘인식(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추론(작용)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의 이해는 나와 타인에 있어서 의도와 동작의 “상호성”(réciprocité)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다.

동작의 의사소통이나 이해는 나의 의도와 타자의 동작의 상호성, 나의 동작과 타자의 행동에서 읽혀질 수 있는 의도의 상호성에 의해 얻어진다. 모든 것은 타자의 의도가 나의 신체에 거주하는 것처럼 또는 나의 의도가 그의 신체에 거주하는 것처럼 일어난다.(288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인데, 곧 메를로-퐁티는 **동작의 이해에 있어서의 이 동일한 논리가 언어의 이해에 있어서도 그**

14)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그러나 동작의 의미는 예를 들어 양탄자의 색깔이 지각되는 것처럼 지각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에게 사물처럼 주어진다 면, 나는 왜 동작에 대한 나의 이해가 거의 언제나 인간적 동작에 국한되는가를 알지 못한다.”



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반대에 직면한다. 즉 만약 동작이 그렇듯 ‘직접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동작이 이해되어짐에 있어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 기호’이기 때문인데, 반면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언어적 기호와 그것의 의미의 관계—흔히 언어의 ‘자의성’으로 말해지는—은 우연적이고 ‘약정적’이다. 그렇다면 말을 동작으로, 즉 “언어적 동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 기호’와 ‘약정’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러한 반론은 ‘언어의 기원’의 수준에서 보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작동하는 지각적 “상호성”이 우선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어의 기원’은 이미 경과한 태고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모든 의미는 매순간의 사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에서 언어적 삶의 ‘현재’를 뜻한다. 아무튼 이런 언어의 기원의 수준에서 보면 언어적 기호와 그것의 의미 사이에 약정적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의 기초가 되어주는 선결적 의사소통이 존재해야 한다: “약정들은 인간 사이의 사후 관계 방식이고 먼저 있어야 할 의사소통을 가정하며 언어를 그러한 의사소통의 흐름 가운데 놓아두어야 한다.”(291면)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이러한 선결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기호와 의미의 관계성이 이미 이루어져서 약정적 연결이 따로 필요치 않는 지각의 수준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기호와 의미의 구분이 항상 메를로-퐁티에 있어서는 표현적 통일성 속에서 존재하는 실제의 언어에 대한 추상적, 회고적 구분으로 이해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를 지각현상으로 규정하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을 검토했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적 표현을 지각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 언어적 표현은 결국 동작, 보다 정확하게 말해 “정서적 동작”(gesticulation émotionnelle)을 소급 지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의 최초의 밑그림을 정서적 몸짓에서 추구해야 하거나

와, 바로 이러한 정서적 몸짓에 의해 인간은 주어진 세계 위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를 쌓아올린다.”(293면)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토대를 이렇듯 정서적 동작 안에서 찾는 것은 결국 언어를 ‘자연 기호’들의 함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유의 매개 없이 언어적 표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동작은 기실 어떤 자연적 보편성 안에 그것의 본질이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언어의 의미가 언어 자신[표현]과 불가분적인 것임을 지적하면서, ‘자연 기호’와 ‘인공 기호’의 이러한 구분 자체가 언어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정의된 이상의 두 개념은 이 경우 정서적 표현의 ‘자연성’과 언어적 표현의 ‘인위성’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그러나 사랑과 성냄의 표현들이 다양한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라 정서적 표현들도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정서적 표현은 의식과 몸 사이의 어떤 자연적인 해부학적 대응관계를 증명해주는커녕, 주체가 속한 문화에 의해 철저하게 관통되며 조율된다. 그런데 정서적 표현이 ‘자연 기호’가 아니라는 이러한 사실은 정서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 사이의 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곧, “탁자를 탁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분노해서 소리치는 것이나 사랑해서 키스하는 것은 더 자연적이지도 덜 약정적이지도 않다. 정감과 정열적 행동은 단어들이 그렇듯 발명되는 것이다.”(294면)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가공된 것(fabriqu )이자 자연적인 것이다.”(같은 면) 이로써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각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고유성’은 지각의 현상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말은 동작과 사물이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 IV. 언어적 의미의 초월성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언어를 그 나타남[혹은 경험]의 방식에 주목하여 철저하게 지각(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말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은 지각 일반에 대한 언어의 고유성을 말소시키지 않는다. 사실 지각과 언어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들이 존재한다. 가령 지각의 대상은 그것을 주시하는 모든 이에게 ‘자연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반면, 말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로서 주어진다. 가령 우리는 결코 타인이 무엇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각은 우리를 ‘주관적’ 세계 속에 머물게 하는 반면,<sup>15)</sup>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언어 주체들은 ‘공통의’ 세계와 관계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령 지각은 ‘자연적 존재’인 반면, 언어는 ‘문화적 존재’이다.

동작에 대해서처럼 단어들에 대해서 내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동작은 인간과 감각적 세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고, 감각적 세계는 자연적 지각에 의해서 관람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향적 대상은 동작 자체와 동시에 목격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언어적 동작은 우선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위해 자신만이 가지는 정신적 풍경(*paysage mental*)을 겨냥한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이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문화이다.(290면)

그런데 말을 부여하는 것은 문화라는 이상의 주장은 『지각의 현상학』 전체를 통해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이룬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자

15) Merleau-Ponty, *La Structure du comportement*(이하 S.C.로 표기), PUF, 1942, p. 228 참조: “나는 내가 지각하는 것과 사물 자체를 동일시할 수 없다. 내가 주시하는 대상의 붉은 색은 향시 나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색이 다른 이들에게 주는 색 인상이 나의 것과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들의 상호주관적 대면은 오직 지각 세계의 가지적 구조만을 대상으로 한다.”

언”과 “문화”를 구분함으로써 저작이 내내 추구하는 ‘지각의’ 현상학의 기획을 송두리째 위협에 빠뜨리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각의’ 현상학은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각 이외의 또 다른 토대를 요구하면 안 되는데, 언어는 자연적 지각을 초과하는 문화를 경험의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이를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 경험이 비단 “심리적 ‘광경’”을 자신의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광경”이 지각의 방식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라면 이때 언어는 지각 외의 또 다른 경험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때 ‘지각의’ 현상학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일부의 경험만을 자신의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진리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인용에 대한 이상과 같은 비판은 자연과 문화에 대한 통상적 대립적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문제의 개념들이 분석의 맥락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고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리고 사실 메를로-퐁티는 문화를 지각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상의 비판을 넘어선다.

문화(세계)의 구성을 문화적 대상의 하나인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하자면, 문화가 지각 위에 어떻게 정초되는가의 문제는 언어적 의미가 지각으로부터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고찰한 대로 언어 경험은 지각(적)이지만, 언어는 자연적 지각 위에서 의미의 분출이라는 추가의 사태에 근거한 것이고, 지각에 대해 언어가 가지는 고유성이 바로 이 의미의 차원에서 기인한다. 가령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개별적 주관적 지각을 넘어 타인과 ‘공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자연적 지각을 넘어서는 언어적 의미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 의미의 초월성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자신의 지각의 현상학의 기획 속에서 메를로-퐁티는 언어적 의미(의 존재)를 지각으로부터 단절하는 지성주의의 시도에 우선 비판적이다. 그에 따르면 사실 앞서 고찰한 지성주의의 관점도 부분적인 진실은 담고 있다. 말하자면 그 관점은 말과 사유를 외적인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언어적 의미가 자연적

지각의 감각 소여들로 환원되지 않고 이 감각 소여들에 대해 초월적 이란 사실을 간접적 방식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다만 지성주의 언어 이론의 한계는 언어적 의미의 이 초월성을 “말 없는 사유의 이상(*l'idéal d'une pensée sans parole*)”(295면)을 통해 정의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성주의는 의미를 ‘순수 사유’에 귀속시킴으로써 의미의 나타남의 질료적 차원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언어의 ‘자의성’이 아무리 표현과 의미 사이에서 외적인 관계만을 보는 지성주의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듯이 보여도, 의미가 표현과의 불가분적인 통일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은 앞서 고찰한대로 창조적 표현의 예를 보면 당장에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이 말해주듯 모든 표현은 궁극적으로 창조적 표현의 결과들이다.<sup>16)</sup> 그렇다면 지각에서의 언어적 의미의 분출, 곧 지각에 기초한 언어적 의미의 초월성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창조적 표현의 발생 구조를 해명하면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료’와의 통일성 속에 존재하는 의미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창조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언어적 의미의 초월성의 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창조적 표현이 새로이 문제로서 부각될 때 메를로-퐁티가 내내 주목하는 것은 창조적 표현의 발생의 논리이다. 먼저 앞서 고찰한 바대로 창조적 표현의 발생이 말[표현]과 사유[의미]의 동시적 발생에 있다면, 이것은 표현과 의미가 인과적 선후 관계에 있기 보다는 양자가 서로 다른 초월성의 양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여기 탁자 하나가 있다고 하자. 한편으로 이 탁자는 자연적 지각 속에서 “형태(*Gestalt*)”로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 이 “형태”는 감각 소여들의 특수한 조직화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탁자를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의 ‘탁자’로 경험할 수 있다. 만일 감각 소여들의 특수한 조직화가 없다면 이 ‘탁자’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대상에 기초를 주는

16) 이로부터 언어의 자의성 이론은 성공한 창조적 표현에 대한 사후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일 뿐임이 드러난다.

것은 여전히 자연 사물의 주어짐이다.<sup>17)</sup> 그러나 문화적 대상의 존재 양상은 이 감각 소여들을 결정적으로 넘어서는 데 있다. 달리 말해 문화적 대상 안에는 자연적 지각을 초과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어떤 것’은 처음에 창조적 표현으로서 발생했다. 여기서 문제는 문화적 대상을 ‘문화적 대상’이게 하는 이 ‘어떤 것’의 발생을 이해하는 일인데, 이에 대해 메를로-퐁티는 그 발생을 “최종적 사실”(301면)로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지각의 주체인 고유한 신체는 주시함을 통해 자신의 대상을 “형태”로 존재하게 하듯, **말이 지각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인 한** 우리의 몸은 문화적 존재로서 단순한 자연적 존재를 넘어서 자신 안에서 의미를 분비한다는 것이다.

그것[고유한 신체]은 하나하나가 즉자로 존재하는 분자들의 집합도 아니고 단번에 규정된 과정들의 혼합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인 그것도 아니다.(il n'est pas où il est, il n'est pas ce qu'il est)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는 ‘의미’를 자신 속에 분비하는 것, 이를 자신의 물질적 주위에 기투하고 다른 육화된 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305면)<sup>18)</sup>

그런데 지각 위에서의 언어적 의미의 발생을 “최종적 사실”로 인식하는 메를로-퐁티의 이상의 주장이 언뜻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실 저 주장은 언어현상이 드러내는 특유의 ‘애매성’을 보전하려는 저자의 시종일관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언어적 의미는 감각 소여들의 단순한 구조(화)

17) 『지각의 현상학』, 444면 참조: “인간학적 공간들은 그 자체 자연적 공간에 근거한 구성물로, 후설처럼 말하면, ‘비객관화 작용들’은 ‘객관화 작용들’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18) 고유한 신체가 자신 안에서 의미를 분비한다는 이 주장은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철학적 이론들은 각기 가정된 ‘최초의 소여[사태]’로부터 시작하여 설명을 전개해나간다고 할 때,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는 고유한 신체가 자신 안에서 의미를 분비한다는 이것이 바로 의미 발생에 있어서의 최초이자 궁극의 사태이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R. Barbaras, *De l'être du phénomène, Sur l'ontologie de Merleau-Ponty*, Millon, 1991, pp. 63-65 참조.

를 초과하는 문화적 존재로 나타나며, 이렇게 볼 때 지각과 언어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미는 지각의 고유한 표현적 통일성 속에서 나타나며, 이렇게 볼 때 의미의 나타남은 철저하게 지각적이다: “말은 자연적 존재를 초과하는 우리의 실존의 잉여이다. 그러나 표현 행위는 언어적 세계와 문화적 세계를 구성하고, 존재 너머로 향해 있는 것을 다시 존재로 떨어지게 한다.”(305면) 그런데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나타남의 방식 속에 환원되지 않는 두 가지 초월(성)의 양상을 말하는 것은 분석상의 모순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게 아니라 하나의 나타남의 방식에 하나의 초월의 양상을 할당하는데 익숙한 통상적인 사고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저 사태는 많은 심리학적 실증적 예들을 통해 지지된다. 가령 실어증에 대한 분석이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보았듯이 실어증에 대한 분석의 핵심은 다음의 사실, 즉 언어 장애가 단어의 결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관념들을 연합하는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표상을 보전하는 능력이나 개념 작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단어를 떠올리는 데 실패한다면 이 실패는 ‘표상’이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경험의 어떤 차원과 관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판단에 관계하기보다는 판단이 발생하는 경험의 환경에 관계하고, 자발성에 관계하기보다는 감각적 세계에 대한 이 자발성의 결정과 어떤 의도라도 그 세계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능력에 관계한다.”(298면, 번역 수정) 이처럼 실어증현상은 사유[개념적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의 차원을 드러냄으로써, 아직 지각의 층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언어적 의미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 V. 귀결되는 철학개념: 철학의 한계와 실존의 풍요로움 사이

『지각의 현상학』의 3부 1장인 「코기토(cogito)」장의 주요 목표의 하나는 사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뒤집어 사유를 지각(현상)으로 다시 해석해 내는 데 있다.<sup>19)</sup>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 목표는 사유와 언어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으로 인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사실 근대 철학이 ‘생각하는 나’를 초시공간적이고 초역사문화적인 객관적 인식의 주체로 파악했다면, 이것은 사유를 본질상 언어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명증(성)의 영역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반면 메를로-퐁티의 이상의 분석들은 사유와 언어의 고유한 통일성에 다시 주목하게 하면서 언어를 사유의 기반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언어가 사유의 기반이라는 이 사실은 사유가 선재하는 언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약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반대로 창조적 표현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현행적인 사유와 언어는 기존의 사유 체계, 기존의 언어 체계를 끊임없는 뒤흔들고 넘어서고 다시 구성하는 자기 초월성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지각과 언어의 본성에 대한 이상의 분석 위에서 이제 서두에서 제기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자. 즉 철학 일반의 기초를 묻는 물음인 바, 우리가 지각에 대해 사유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지각 자체와 지각에 대한 사유 혹은 언어적 표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코기토」장의 논의들 속에서 이 물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거기서 이상 언급한 문제는 **지각과 관념의 관계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테면 ‘지각된 삼각형’과 ‘삼각형의 관념’의 관계가 그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삼각형의

19) 이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위해서는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코기토 에르고 숨」, 『철학연구』, 38권, 1996, 123-146면; R. Barbaras, “Conscience et perception, Le cogito dans 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Le Tournant de l'expérience, Recherches sur la philosophie de Merleau-Ponty*, Vrin, Paris, 1998, pp. 159-182 참조.



관념은 일단 구성되어 주어지면 우리들의 경험적 개별적 지각에 하등 빛지지 않는 순수한 이념적 존재로 나타나지만, 창조적 표현의 경우에서처럼 그 관념이 최초로 발생하는 “발견의 논리”(575면)에서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개별적이고 특수적인 “감각적 또는 상상적 삼각형”(576면)의 지각에 의존한다.<sup>20)</sup> 말하자면 앞서 언어적 의미의 초월성에 대해 분석한대로, 지각된 삼각형에 대한 사유이자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삼각형의 관념은 지각된 삼각형에 기초한 언어적 의미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각된 삼각형과 삼각형의 관념은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사유를 포함하여 경험 일반이 발원하는 우리의 세계 경험[지각]과 철학의 정의 자체인 이 경험에 대한 다양한 사유와 말들은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이 최종적인 물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적 입장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메를로-퐁티가 분석에 있어서 수행한 ‘관점의 전환’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 지각된 삼각형은 결코 정의에 부합하는 바의 삼각형일 수 없다는 예로 드러나듯이, 근대 이래의 지성주의적 비판적 정신은 **지각된 세계가 인식된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지성주의는 지각된 세계에 대해 인식된 세계에 ‘우위성’을 부여하며, 이 불일치를 지각된 세계를 인식된 세계의 “결여” 혹은 “부정”으로 간주하는 계기로 삼았다.<sup>21)</sup> 그러

20) 근대 이래의 합리주의적 사유는 정의에 부합하는 바의 삼각형의 관념이 우리의 감각 지각으로부터 ‘직접’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그 관념의 원천으로 지각과는 구분되는 정신의 어떤 능력(소위 ‘이성’이라 불리는데)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성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언급한대로 이것은 관념(경험)의 ‘질료적’ 차원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진 관념에 대한 형식적, 타당적 분석이었다. 반면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관념의 경험은 철저하게 지각을 자신의 ‘질료적’ 토대로 필요로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얘기되는 “감각적 또는 상상적 삼각형”의 지각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관념의 경험은 철두철미 지각적이고, 따라서 관념에 대한 경험, 즉 사유는 지각인 것이다.

21) 이에 관해선 메를로-퐁티의 다음의 논평을 참조 : “사실, 만일 지각에서 사람들이 시작하는 과학, 과학적 협조를 통해서만 완결되는 경험의 최초의 조직화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소위 감각적 의식은 문제 자체가 되지 않을텐데, 왜냐하면 그 때 지각적 경험에 ‘고유한’ 특성들은 결여와 부정

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성주의의 이러한 관점은 경험의 정초관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성주의는 인식된 세계가 ‘질료적 토대’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어짐에 대응하는 정신의 특별한 능력을 가정해야했지만, 기실 인식된 세계는 지각된 세계에 기초한 초월론적이고 언어적인 상승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 세계에 대한 모든 인식은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지각 위에 기초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같은 말이지만,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세계를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이 세계에 대한 물음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인식된 세계를 구성하는 관념들의 원천은 바로 지각된 세계이다. 그런데 이 지각된 세계로부터의 관념의 발생이 문제일 때, 메를로-퐁티가 두 가지 말을, 곧 “이미 확실한 사고를 옹기는 2차적 말과 이것을 우선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존재하게 하는 발원적 말”(581-582면)을 엄밀히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이미 구성된 사유들을 단순히 재생하는 “2차적 말”은 관념의 발생의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관념이 새로이 생성하는 “1차적 발원적 말”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문제, 즉 그 자체로서의 지각과 이 지각에 대한 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상의 분석은 중요하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바에 따라, 인간은 구분되는 두 가지 질서, 곧 지각의 질서와 언어의 질서에 동시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질서가 맞닿는 공통의 지대인 “발원적 말”을 분석함으로써 이 두 가지 질서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사실, 일단 구성되면 말(“2차적 말”)은 지각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때 지각에 대한 우리들의 말은 지각의 질서와

---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브렁쉬빅은 쓴다 : ‘직접적 경험의 우주는 과학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를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그 세계는 피상적이고 절단된 세계이며, 스피노자가 말한 바대로, **전제없는** 결론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S.C. p. 217)

는 다른 질서, 곧 말의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지 하듯이, 바로 여기로부터 개별적 지각과 보편적 개념의 연결을 시도해야 하는 철학의 오래된 과제가 제출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메를로-퐁티와 함께 이 “2차적 말”은 “발원적 말”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문제는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곧, 이미 분리된 개별[특수]과 보편 사이에서 어떤 매개적 계기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반대로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 **탄생하는 시점에 있는 말을 그 자체에 즉해**서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언어의 경이”에 대해 말한다. 즉 **우리들의 신체는 지각에서 말로의 이행을 단번에 수행한다**는 것으로, 경험에 충실한 기술은 다음의 사실을, 곧 **우리들의 신체는 지각 자체를 삭제하면서 그 지각 안에서 말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자가 “발원적 말”의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말의 탄생에 있어서의 역동성이다.

언어의 경이는 언어가 자신을 망각하게 한다는 사실에 있다. 나의 눈은 종이 위의 글줄에 있고 내가 그 글줄이 의미하는 바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 종이, 종이 위의 글자들, 나의 눈, 나의 신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출조건으로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표현은 표현된 것 앞에서 없어지고, 이것이 그 매개적 역할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이며, 데카르트가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이다.(599면)

그런데 “표현이 표현된 것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없어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의미가 표현 자체와 분리되지 않는 표현적 통일성이 문제일 때, 이 통일성은 어떤 통일성인가? 이 물음은 메를로-퐁티의 철학개념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철학은 그 자체가 우리들의 세계 경험에 대한 말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표현에 특유한 이 통일성은 ‘표현으로서의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진다. 철학이 말을 할 때, 철학은 도대체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

험에 관한 말이라면, 경험 자체와 철학이 언표하는 경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지각된 삼각형과 삼각형의 관념의 관계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다음의 분석은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예시가 되어 준다.

실제적 삼각형들, 즉 지각된 삼각형들은 체험된 공간이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처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영원토록 2직각과 동등한 내각의 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현 방식들 사이에 근본적 차이는 없는 셈이고, 우리는 그 중의 하나에 마치 그것이 즉자적 진리를 표현하는 양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584면, 번역 수정)

왜 저 삼각형의 관념은 삼각형에 대한 우리들의 지각과 관련하여 그것이 태고로부터 누려온 진리의 특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 왜 표현의 다양한 양상들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표현현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말들은 지각과의 근본적 단절의 대가를 치른 후 태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즉자적 진리’를 말할 수 없듯이, 모든 표현들은 진리의 ‘구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철학개념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곧, 철학이 지각에 대해서 사유하거나 말하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유와 말에 고유한 초월성의 논리에 의해 자연적 지각을 넘어서 의미의 영역 안에 단번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자체로서의** 지각을 사유할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다. 철학이 우리들의 경험의 본래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결코 ‘ 옮겨쓰기’가 아니다. 철학이 사유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사유하고 말하기가 철학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험 자체와의 근본적 분리에로 우리를 이끌 어간다 할지라도, 철학은 예술처럼 경험의 의미 혹은 진리를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철학의 이 근본적 ‘한계’는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리들의 ‘유한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은 “의미에로 선고된”(31면) 우리 실존의 본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투 고 일: 2012. 07. 02.  
심사완료일: 2012. 07. 26.  
게재확정일: 2012. 07. 28.

**박신화**  
서울대학교

## 참고문헌

-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코기토 에르고 슴」, 『철학연구』, 38권, 1996.  
신인섭, 「지각에서 역사로의 교두보, 메를로-퐁티의 언어 현상학」, 『철학연구』, 제70집, 2005.
- 이남인,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근간).
- 주성호,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진리문제」, 『기호학연구』, 제 14권, 2003.
- 후설, 『데카르트적 성찰』, 이종훈 옮김, 한길사, 2002.
- Barbaras (R.), *De l'être du phénomène, Sur l'ontologie de Merleau-Ponty*, Millon, 1991.
- \_\_\_\_\_, “Conscience et perception, Le cogito dans 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Le tournant de l'expérience, Recherches sur la philosophie de Merleau-Ponty*, Vrin, Paris, 1998.
- Dastur (F.), “Le corps de la parole”, *Chair et langage, Essais sur Merleau-Ponty*, Encre Marine, 2001.
- Merleau-Ponty,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U.F., 1942.
- \_\_\_\_\_,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_\_\_\_\_, *Le primat de la perception et ses conséquences philosophiques*, Cynara, 1989.
- \_\_\_\_\_, *Merleau-Ponty à la Sorbonne. Résumés de cours 1948-1952*, Grenoble, Cynara, 1988.
- Waldenfels (B.), “Le paradoxe de l'expression chez Merleau-Ponty”, *Notes de cours sur L'Origine de la géométrie de Husserl*, éd. R. Barbaras, P.U.F., 1998.

## ABSTRACT

## The Conception of Philosophy in Merleau-Ponty's *Phenomenology of Perception*

Park, Shin-Wha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philosophy in *Phenomenology of Perception*, which is an early work of Merleau-Ponty. According to his main position, philosophy is the thinking and expression of our experiences through language. Here,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itself and experience thought and expressed by signification is raised. Merleau-Ponty considers this question as a question about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in the plan of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o begin with, the phenomenon of language is defined as that of perception in consideration of its manner of appearance [experience]. Second, the phenomenon of language demands, nevertheless, an additional situation of the eruption of senses on (natural) percep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uctural 'identity' and a 'modal'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This double relation between the two induces the author's peculiar conception of philosophy, which we can deduce in the chapter entitled "cogito."

**Keywords:** Merleau-Ponty, perception, thought, language, conception of philosophy

